

보도 시점 2024. 9. 12.(목) 11:00 배포

2024. 9. 12.(목) 10:00
(브리핑 09:20)

강민수 신임 청장, “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,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, 함께 만들어 가자.”

- 9.12.(목),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여 「국세행정 운영방안」 등 공유
-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과 함께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 논의
-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면서, ‘과세형평성·조세정의’에 방점

□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9.12.(목)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「국세행정 운영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-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□ 먼저,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.

- 이를 위해,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,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*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.

*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하여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, 터치 한 번으로 신고 가능

□ 다음으로, 한정된 인력·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.

- 구체적으로,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 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, 고가 부동산*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.

* 시가 과세가 필요하나, 기준시가로 과세되었던 꼬마빌딩, 초고가 아파트, 상가겸용주택 등

□ 한편, ‘공정’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되,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.

- 우선,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*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.

* ('19) 16,008건 → ('20) 14,190건 → ('21) 14,454건 → ('22) 14,174건 → ('23) **13,973건**

- 다만,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.

- 또한,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*를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, 특허권·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.

*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, 서화·골동품 트래킹 시스템, 외환분석 시스템 개선 등

□ 이와 함께, 납세자의 신고·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
- 특히,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, 지능형 홈택스*를 구현하는 한편,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·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
* AI 검색 시스템 도입,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포털 구축,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

□ 마지막으로,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,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,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.

□ 강민수 국세청장은 “국세청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,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”며,

- “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.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※ 「국세행정 운영방안」과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 윤순상 (044-204-2301)
		담당자	서기관 김현승 (044-204-2302)

